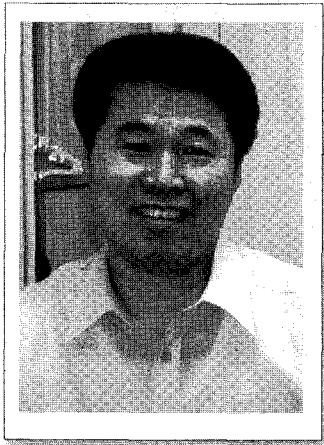


●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발명에는 내일이 없다



김 병 오
전국발명교육연구회 회장
(inv.or.kr/ajukbo@hanmail.net)

발명하는 사람들이 2004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단테의 명언이다.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냈다면 그것은 커다란 손실이며 하루를 유익하게 보낸 사람은 보물을 파낸 것이다. 즉 하루를 헛되이 보냈으면 내 몸을 헛되이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과거는 과거로서 파묻어 버려야 한다. 과거에 연연하고 그 슬픔으로 현실을 덮지 마라! 이미 톱질이 끝난 톱밥을 다시 톱질 할 수는 없다. 과거는 톱밥과 같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한 오늘의 행동과 결단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중한 날, 그리고 가장 절정의 순간은 언제인가? 지금 이순간, 바로 오늘이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을 붙들어야 한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우리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특히 발명가에게는 어제를 그리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일을 기다릴 수도 없다. 단지 오늘만 있을 뿐이다.

오늘과 내일의 차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은 그 어떤 수단에도 의해서도 좁힐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것은 내일을 사는 것보다 절박하다. 내일은 시간이 흐르면 계속해서 다가오지만 오늘은 이 순간이 지나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과 내일의 간격 때문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한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어느 조그마한 서점에 ‘내일은 책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책을 사기 위해 서점을 들렀던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그냥 돌아갔다. 다음날 서점에는 아침 일찍부터 공짜로 책을 받아가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책을 욕심껏 가지고 나오는데 출입구 쪽의 계산대에서는 돈을 받고 있었다. 그중 한사람이 서점 주인에게 물었다. ‘오늘 책을 무료로 준다고 해 놓고서는 왜 돈을 받는 것이요?’

그러자 주인은 ‘아, 안내문에는 내일 무료로 드린다고 했지만 오늘 무료로 드린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돈을 내셔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책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 안내문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내일은 책을 무료로 드립니다’라고 써여져 있었다.

발명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오늘’을 계기로 일어난 이야기가 있다. 전화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알렉산더 그레이 햄 벨(1847-1922)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벨이 실용적인 전화기를 처음 만들어 실험에 성공한 것은 1876년 3월 10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전화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신청한 것은 그보다 거의 한 달 앞선 2월 14일이고, 이에 대해 워싱턴 특허국의 특허를 얻은 것은 3월 7일이었다. 그의 전화기가 실제 실험에 성공하기도 전에 이미 그는 특허

를 갖고 있던 셈이다.

그런데 벨이 특허를 신청한 1876년 2월 14일에 또한 사람의 발명가가 거의 똑같은 전화기를 가지고

특허 신청을 했다. 시카고의 엘리샤 그레이(1835-1901)란 사람이었다. 그레이의 발명품은 벨의 것보다 오히려 약간 나은 점도 있었지만 특허는 2시간 먼저 신청한 벨에게 주어졌고, 특허를 받은 벨의 전화가 결국 세계를 휩쓸었다.

물론 독일의 요한 필립스 라이스(1834-1874)처럼 1860년에 이미 거의 같은 전화를 만들어낸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태생의 영국인으로 미국에서 농아 교육에 종사하고 있던 음성생리학 교수 벨이 만든 전화는 1876년 여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 독립 1백주년 기념 박람회에서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이듬해 에디슨(1847-1931)이 탄소 송화기를 발명함으로써 전화기 발명이 빛을 보게 되었다.

발명가에게 내일은 없다

가끔은 지나버린 과거에 집착하여 ‘왕년에 ○○ 안 해 본 사람 있나?’ 또는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과거 학창시절의 이야기나 젊었던 시절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경우가 많다.

만약 지나간 과거의 생활 속에서 느낀 내용을 오늘 새로운 제품으로 연결시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명품을 발명한다면 그것은 성공할 수 있을까? 또 ‘해야지, 해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서도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 온 일이 있지 않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제를 그리워하고 현재 상황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일까?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목은 일, 즉 줄곧 생각만 하고 착수하지 못한 채 미루어 오던 일을 지금 바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보자.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면 축구공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가 보자. 여행하는 것을 미루어 왔다면 눈꽃 축제도 가보고 한 라산에도 오를 수 있도록 지금 곧 여행 가방을 챙겨 출발하자. 또 체력이 약하다면 오늘 아침부터 조깅을 하고 줄넘기를 꾸준히 계속하자. 꽃을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단에 씨앗을 심고 물을 뿌려 보자. 그 씨앗이 발명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결국 먼저 심은 씨앗이 먼저 싹을 틔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공자가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앞서가던 여인이 값진 시루를 떨어뜨려 깨뜨렸다. 보는 사람도 걱정스러운데 정작 시루를 깨뜨린 여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것이었다. 제자들이 공자에게 여인의 행동에 대해 묻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 여인의 행동이 옳다. 이미 깨어진 시루를 보며 걱정하기보다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서 일을 해 돈을 벌어서 시루를 사는 편이 낫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 버린 과거나 깨져버린 시루

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어제는 뒤졌으나 오늘은 이긴다

출발은 늦었으나 현재 우위를 점하는 세계 최고 품질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더하기 발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세계 최초의 제품을 개발했다면 몰라도 다른 사람이 발명한 제품을 새롭게 만들어 단지 일 내에 세계 정상급 제품으로 향상시키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개발이 늦었거나, 또는 품질 경쟁력이 뒤지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더하기 발명이 포인트이다.

최근 하이테크 제품에 독특한 기능을 첨가하여 어제는 뒤졌으나 오늘은 최고가 된 기업도 많다. 소니(SONY)는 79년 소형 카세트에서 전축 수준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도록 스테레오 기능을 더해 ‘워크맨(Walkman)’을 발명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물론 소니는 텔레비전이나 카세트, 녹음기를 세계 최초로 만들지 못했고, 비디오나 콤팩트 디스크(CD)도 처음 생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소니가 텔레비전을 비롯한 가전시장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독특한 기능, 즉 더하기 발명에 승부를 걸어 이를 상업화하였기 때문이었다.

볼보(VOLVO)는 보통 자동차와의 차별성을 위해 최초로 측면 충격 보호시스템(SIPS)과 스노우 체인을 장착한 자동차를 생산했다. 이외에도 전세계 자동차가 쓰고 있는 삼각 안전벨트와 헤드라이트에 와이퍼, 그리고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설치된 삼각 안전벨트도 볼보 자동차가 처음 도입하여 안정성을 높인 더하기 발명사례들이다. 볼보는 이런 노력으로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NHTSA)의 안전도 테스트에서 중·대형차 부문 1위를 고수하면서 세계의 자동차 중 안정성이 가장 뛰어난 차로 인정받아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독특한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그럼 과연 오늘 당장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일까? 물론 생존에 위협을 주는 숨쉬는 일, 밥 먹는 일, 잠자는 일, 화장실 가는 일 등은 하루라도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존에 관한 일들이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이라면, 발명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생존에 관한 일들은 무엇일까?

만약 외출을 하려고 나가려다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었다. 그런데 화장실 신발에 물기가 가득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또 목욕탕에서 혼자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등을 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에 젖지 않은 양말을 개발하거나, 물기가 빨리 마르는 화장실 신발을 개발해야 하고, 또 혼자 등의 때를 밀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내는 등의 작지만 우리가 오늘 당장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닐까.

발명아이디어 건강을 지켜주는 ‘지압 줄넘기’ 만들기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 줄넘기에 지압 효과를 곁들이는 것은 어떨까? 수백개의 돌기를 가진 PVC 지압기를 줄넘기 손잡이 부분에 부착하면 운동을 하는 동시에 손바닥 지압을 할 수 있고 손바닥의 땀으로 인해 줄넘기를 놓치는 일도 없으며 또 손바닥 혈액순환도 좋게 하여 건강에 더욱 좋은 지압 줄넘기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

■ 준비물
일반 줄넘기, 가위, 펜치, 지압봉(PVC), 송곳

■ 만드는 방법

- ① 준비된 재료 중 지압봉의 줄넘기 부착 부분에 송곳을 사용하여 줄넘기 굵기의 구멍을 뚫는다.
- ② 일반 줄넘기에서 손잡이를 떼어낸다.
- ③ 줄넘기 줄을 지압봉의 손잡이에 끼워 연결한다.

발명에는 ‘건강을 원하는 이들의 편리를 이용하라’는 기법이 있다. 사람에게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수많은 건강보조식품이나 실내에서 타는 체력단련 자전거, 혈액순환을 돕는 자석베개와 같은 발명품들이 수없이 많다.

자료제공 : 전국발명교육연구회 김병오 회장